

통권 제 191호

장남. 라 00943

2563
2019

09

불교 이야기
제화이란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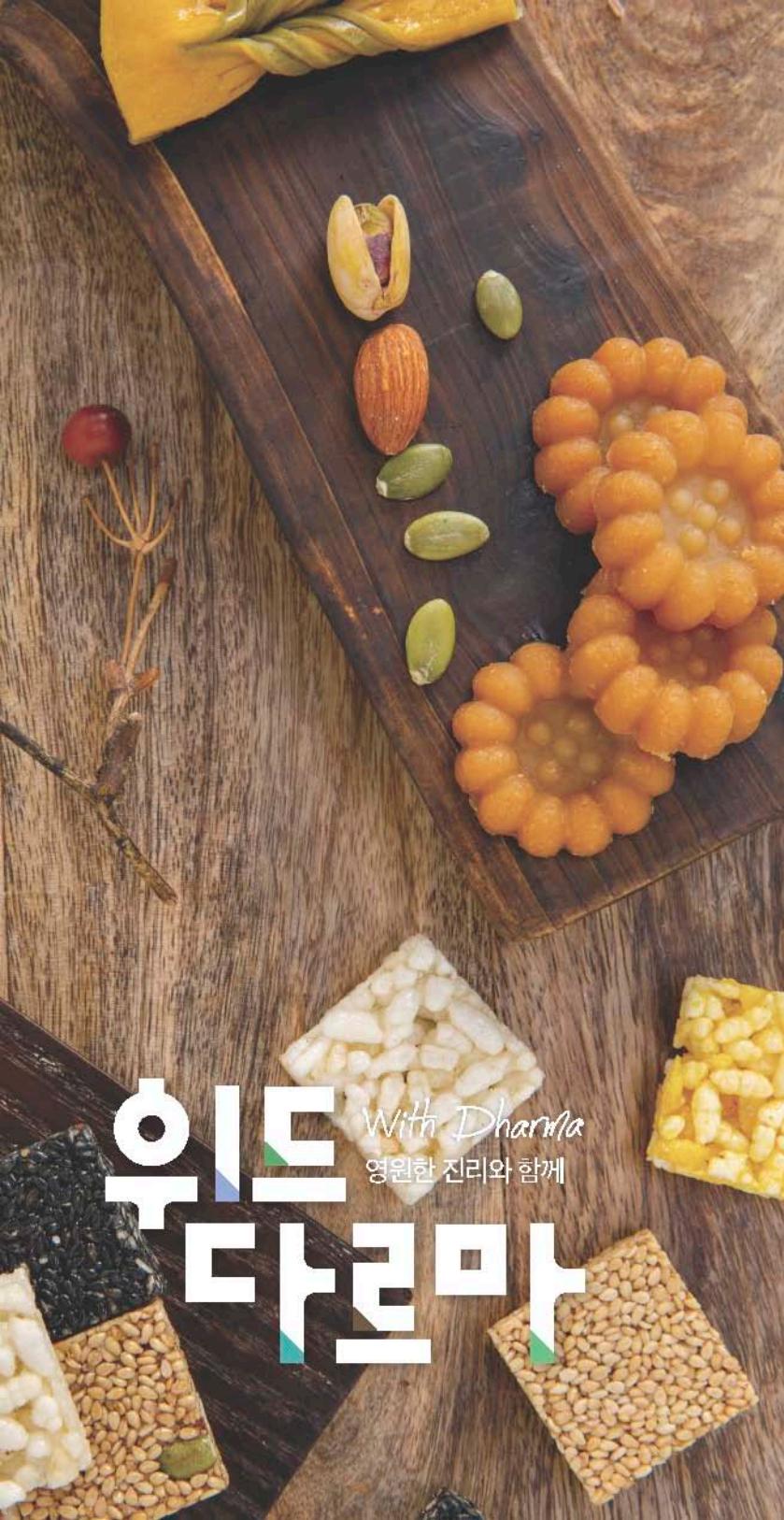
함께 만든 100년
순수 시인 윤동주



절망에 달진 이야기
그대가 장두려워
하는 것은?

煦德 다라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종조법설집

제2장 수행편 제4절 마음 p.168

(7) 마음을 바로 닦자.

온혜는 평생으로 잊지를 말고 수원^{深厚}은 일시라도 두지를 말라.
 내가 어버이에게 효순^{孝順}하면 자식이 어찌 효순하지 않겠느냐.
 효순은 심덕^{心德}의 대원^{大元}이요 백행의 근본이며
 보리행의 유품이 되는 것이라.
 이 마음을 잘 닦자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순하며
 가정에 회복하고 친구에게 신^信을 두고 남에게 불의^{不義}하지 말며
 산목숨 죽이지 말고 남의 재물 훔치지 말며 내 가족^{家屬}두고
 남의 사람 욕심두지 말며 모진 악담하지 말며
 두 말로 사람을 속이지 말며 말을 이리저리 꾸미지 말며
 남의 못된 험담하지 말며 못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만 하는 것이 이 마음을 잘 닦는 것이라.



위드 다르마

WORLD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다르마 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 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총지종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계율이야기 14

음식에 대한
계율(2)
법경 정사



아름다운 세상 32

한국 명상 지도자
포럼에 다녀와서
묘원화 전수



십선성취 46

수행^{修行}
지현 전수



04 불교이야기

- 10 마중물
- 14 계율이야기
- 20 살다보면
- 26 향유
- 30 산책
- 32 아름다운 세상
- 36 마음의 등불
- 40 생활 속 식물이야기
- 44 백유경
- 46 십선성취
- 50 함께 만든 100년
- 54 씨앗 한 알
- 58 디딤돌
- 62 거꾸로 보기
- 66 차향기
- 70 독자기고
- 72 걸망에 담긴 이야기
- 74 뜻 바루기
- 76 되짚어 보기
- 78 컬리링 만다라세상

계학이란 무엇인가

- 화령 정사
- 성철^{成徹}스님이 들려준 이야기 원택^{圓澤} 스님
- 음식에 대한 계율(2) 법경 정사
- 부모 성장기 이옥경
- 휴가 강동현
- 시간 김대곤
- 한국 명상 지도자 포럼에 다녀와서 묘원화 전수
- 역사라는 거울 최익현
- 모으는 데 집착하지 말자 칼란코에 - Kalanchoe 이태용
- 말라 버린 소젖
- 수행^{修行} 덕현 전수
- 순수 시인 윤동주 자성 전수
- 병을 치유하는 길 법상^{法상} 스님
- 영화 <그린 북> 지현 전수
- 이불 공주는 누가 깨물까 3 박현희
- 차를 마실 때 주의해야 할 것들… 김정애
- 함께라서 좋은 합창 여순애
- 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법일 정사
- 삼밀유가^{三密瑜伽}와 오자업신관^{五字競身觀} 김재동
- 현관^{玄關}
-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얕은 개울물은 소리 내어 흐르고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아주 조용하다.

어리석은 자는 물이 반쯤 찬 항아리 같고

지혜로운 자는 물이 가득 찬 연못과 같다.

What Is Not Full Makes a Noise

Shallow brooks are noisy;

deep rivers are silent.

What is not full makes a noise;

what is full is silent.

A foolish one is like a half-full water-pot;

a wise person is like a full pond.

- 글 : 달라이 라마

화령 정사
불교총지종 교육원장
철학박사
정심사주교



수계와 파계(3)

불교의 계라는 것은 실천적 의미가 강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으로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들이 정한 계 조항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만 불교는 실제 우리의 마음을 향상시키고 정신수준을 끌어 올릴 여러 가지 방편을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삼취정계나 수계식을 통한 계체의 확립, 혹은 계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스스로 계를 놓는 사계^{捨戒} 등이 다 스스로를 악으

로부터 지키고 그를 통하여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불교의 자비정신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불교에서처럼 계가 우리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오직 경직되게 계 조항을 교조적으로 준수하는 것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 준수해야 할 계를 어겼다고 해서 처형을 하기도 하고 교조적인 계 조항 때문에 다른 종교나 민족을 박해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삼대종교로 언급되는 기독교나 이슬람의 경우에는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보면 자기들의 계를 준수한다는 미명하에 해서는 안 될 많은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일부 기독교 계통의 극성교인들은 불교를 원수 대하듯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된 계를 준수한다고 다른 종교를 원수 대하듯 하는 것은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 지금 시대에는 정말 맞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나마 정도가 덜하지만 이슬람의 경우는 너무 끔찍합니다. 매일처럼 뉴스에 나오는 테러나 살상 행위가 모두 잘못된 계율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면 앞으로의 일이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슬람 유입 인구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은 종교가 서로 다르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어울려 살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종교들과는 달리 불교의 계는 지악행선^{止惡行善}이라는 말에도 나타나듯이 악을 억누르고 선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를 준수함에 있어서 우리의 심리적인 영향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단순한 규칙이나 법률 등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쉽사리 파계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하에서 파계해야 할 경우에는 차라리 계를 버리고 다시 받아 계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계를 범했다고 해서 자기는 이제 버린 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악업만 쌓게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잠시 계를 반납하고 나중에 다시 계를 받아 지키는 것이 낫다는 취지에서 사계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파계의 재화^{財物}와 지계의 공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의 파타리라는 마을에 가셨을 때 그곳의 불교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사들아, 오계를 범한 파계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재화가 있느니라. 첫째, 계를 범한 파계자는 제멋대로 방일하여 재물의 손실을 입는다. 이것이 파계자의 범계^{犯戒}에 의한 첫 번째 재화이다. 다음에 거

사들아, 계를 범한 파계자에게는 나쁜 평판이 생긴다. 이것이 파계자의 범계에 의한 두 번째 재화이다. 다음으로 거사들아, 계를 범한 파계자는 왕족의 모임이나 바리문의 모임, 거사의 모임, 사문의 모임 등 어떠한 모임에 가도 자신이 없고 두려워하며 부끄러워한다.

이것이 파계자의 범계에 의한 세 번째 재화이다. 다음으로 거사들아, 계를 범한 파계자는 정신이 착란되고 몽매한 채로 죽는다. 이것이 파계자의 범계에 의한 네 번째 재화이다. 다음으로 거사들아, 계를 범한 파계자는 몸이 허물어져 죽은 뒤에 고계, 악취, 타처^{他處}, 지옥에 태어난다. 이것이 파계자에 대한 다섯 번째 재화이다. 거사들아, 파계자는 범계에 의하여 이러한 다섯 가지 재화를 받는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파계에 대한 훈계는 주로 재가자들을 상대로 설법하신 것입니다. 재가자들이 파계를 하게 되면, 우선 재산상의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살생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남을 다치게 한다든가 공금을 횡령하는 따위의 부정을 저지르게 되면 그것을 물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이 생길 것입니다.

음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를 지키는 절도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면 자기의 재산이 축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혼자 살면서 착실히 저축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도 심심하니까 도박이나 경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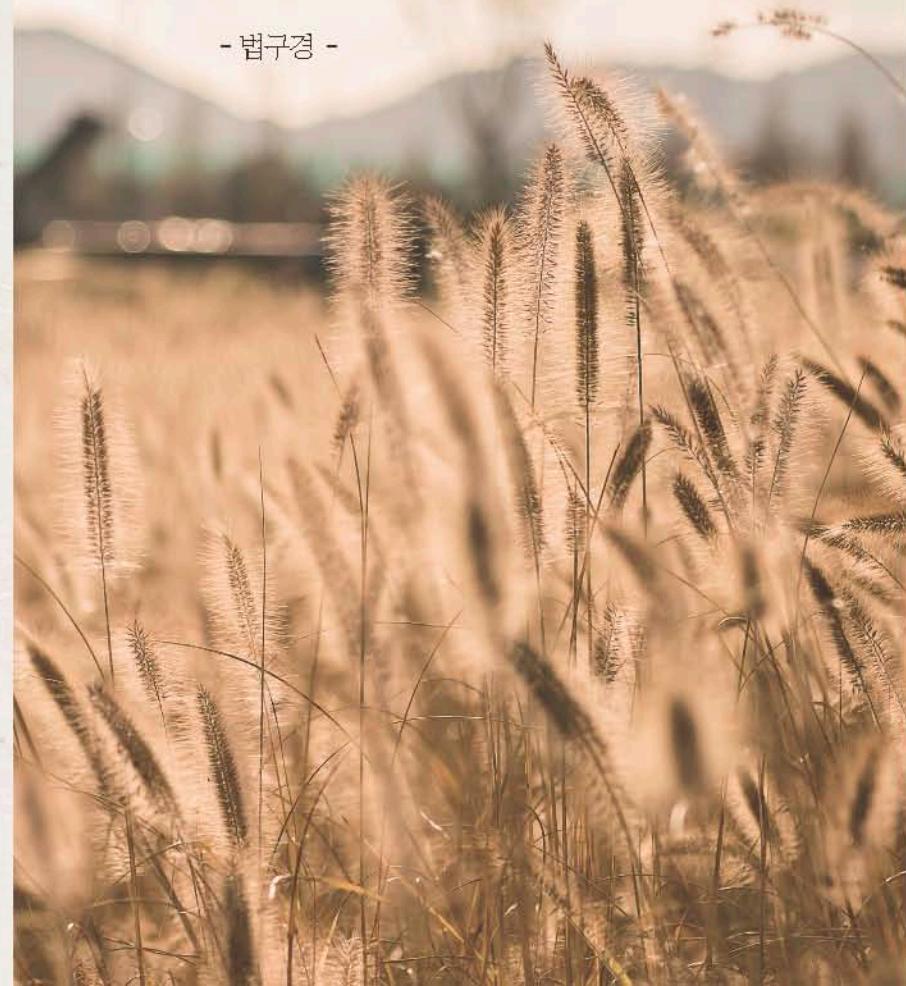
같은 데에 손을 대어서 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도박이나 경마나 내기 등을 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불투도의 계를 어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치고 제대로 재산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파계자의 첫 번째 재화가 재산상의 손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움 속에 살면서 미워하지 않음이여
내 삶은 더없이 행복하여라.
사람들 서로서로 미워하는 그 속에서
나만이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미워하지 말고
바람처럼 물처럼 살아가자.

- 법구경 -



성철스님이 들려준 이야기

원택 스님



“너그가 모두 부처대이. 다만 너그가 깨닫지 못할 뿐이고, 느끼지 못 할 뿐이지. 너그가 전부 부처, 특별한 사람이대이.”

“오직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부처님 말씀에 따라 불공을 해보자 이것입니다. 그리하여 조석으로 부처님께 예불하면서 꼭 한 가지 축원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일체 중생이 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일체 중생이 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일체 중생이 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세 번 하는 겁니다. 매일 해보면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참으로 좋은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돈 갖다 주고 명과 복을 빌려 하지 말고, 너희가 참으로 나를 믿고 따른다면 내 가르침을 실천하라 하신 겁니다. 이건 바로 중생을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길가에 병들어 거의 죽어가는 강아지가 배고파 울어댈 때, 식은 밥 한 끼이를 그 강아지에게 주는 것이 당신께 만반진수를 차려놓고 수천만 번 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를 믿든지, 예수교를 믿든지 자기의 신념대로 하는데, 예수교를 믿으려면 예수를 믿어야지 신부나 목사 같은 사람을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마찬가지로 불교도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지 승려를 따라가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천당도 극락도 아닌 지옥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중간에서 소개하는 것이지, 내 말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달을 가리키면서 저 달을 보아야지, 달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석가모니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버려야 합니다. 석가모니, 예수, 공자, 노자 할 것 없이 성인과 악인을 다 버리고 닦아내면 푸른 허공과 같이 깨끗하게 되나니, 이 허공까지 부수어 버려야 본 마음을 봅니다. 과거 성인들의 말씀에 너무 집착하여 이를 버리지 못하면, 본 마음에 이보다 더 큰 병폐와 장애가 없습니다.”

“세속을 불교화해야지 불교가 세속화 되어서는 안됩니다. 승려는 세상이 아무리 서로 가더라도 바른 길이 동이라면 동으로 가도록 계속 빛을 발해야 합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이 세속화되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다 같이 익사하는 꽃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물에 빠뜨리지 않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수 불교 정신입니다.”

“참 불공이란 남을 아무리 도와주었다고 해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바른손이 모르게 하라.’ 참 기막힌 말씀 아닙니까! 자기 왼손으로 남을 도우면서 자기 오른손도 모르게 하라 했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불교엔 용서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용서라는 말이 없다고 잘못한 사람과 싸우라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상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나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다, 그러니 잘한 내가 잘못한 너를 용서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상대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말입니다. 상대의 인격에 대한 큰 모욕입니다.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의 불성이 똑같다고 봅니다. 성불해서 연화대 위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이나 죄를 지어 무간지옥에 있는 중생이나 자성의 자리 실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곁을 보고 미워하거나 비방하거나 나아가 세속에서 말하는 용서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대학생은 학문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학문의 목적은 인격 양성에 있지 기술습득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실태를 보면 인격양성보다 기술습득에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질문명이 발달된 나머지 대학이 앞으로의 직업준비를 위해 있는 것 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학은 어디까지나 학문을 통해 원만한 인격을 도야하는 진리탐구의 전당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하는데, 완성된 인격이야말로 영원한 예술이 아니겠습니까.”

“개는 뚱만 보면 뛰어가지요. 사람도 물질만 보면 좋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욕심의 노예가 되어 동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없지요. 사람들이 욕심을 없애면 바로 이곳도 극락입니다. 사람으면 사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천지간에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나는 사람이다.’하고 살아야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산다면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날카로워야지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



음식에 대한 계율(2)



청정한 계율 52

법경 정사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소장
철학박사
법천사주교

음식을 묵혀서 먹지 말라

지난 호에서도 음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계율[바일제법]을 살펴보았는데, 이번 호에서도 음식과 관련된 계율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음식에 대한 계율은 대부분 바일제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참회로써 끝나는 다소 가벼운 벌칙의 계율이다.

출가 수행자에게 음식은 미식^{美食}의 대상이 아니라 육신을 지탱할 정도의 량이면 족하다. 따라서 절제와 무소유의 정신이 요구되며, 과식과 편식, 축적의 대상은 아니다. 음식 가운데 묵혀 먹지 말라는 계율이 있다. 이를 식잔숙식계^{食殘宿食戒}라고 한다.

묵힌 음식을 잔숙식^{殘宿食}이라 하고, 잔숙식을 먹는 것을 식잔숙식^{食殘宿食}이라 하며, 이 잔숙식을 먹지 말라는 계가 바로 식잔숙식계^{食殘宿食戒}이다. 즉 잔숙식^{殘宿食}의 잔^殘은 식사를 하고 남은 음식을 말하고, 숙^宿이란 하룻밤 보관해둔 음식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식사를 하고 남은 음식을 다음날 먹기 위하여 보관해둔 것이 잔숙식이다. 잔숙식의 경우, 음식을 남겨 두면 다음 날 탁발[걸식] 하려 나가는 번거로움이 없게 되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석존은 내일을 위하여 오늘 음식을 저장, 보관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였다. 이는 무소유와 물건에 대한 탐착을 없애기 위함이었다고 보여



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무더운 열대지방에서 쉽게 음식이 상하여 식중독이나 전염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남겨서 나중에 먹는 것을 금했다고 보는 이도 있다. 그러나 읊장에서 잔숙식을 먹지 말라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이 계율이 제정된 인연담은 다음과 같다.『사분율』의 내용이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산에 계실 때 가라 존자가 시중에 걸식을 하러 나갔는데 음식을 얻기가 정말 쉬웠고, 수량 또한 풍족하였으므로 귀찮게 매일 밥을 얻으러 나갈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미 받아 놓았던 음식을 오늘 먹고, 오늘 받은 음식은 남겨두었다가 그 다음 날 먹곤 하였다.

이렇게 하다 보니 매일 도반들이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으므로 그를 찾아가 이유를 물어서 상황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을 부처님께 말씀드리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계를 제정하셨다. “어떠한 비구라도 밥을 남겨 두었다가 묵은 밥을 먹으면 바일제가 되느니라.”

그러나 밥을 남겨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병자^{病者}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병자는 한꺼번에 다 먹지 못하므로 남겨 두었다가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도록 하였다. 그것도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만이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받지 않은 음식을 먹지 말라

다른 사람이 음식을 주지도 않았는데, 과연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남이 주지 않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계율로 정하고 있다. 즉 받지 않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불수식계^{不受食戒} 한다. 불수식계는 타인으로부터 받지 않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게인데, 예를 들어 산야에 익은 과일 등을 따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설사 소유자가 없는 과일나무라 하더라도 비구는 스스로 그 과일을 따 먹을 수 없고, 떨어져 있는 열매도 주워 먹을 수 없다.

이를 넓게 해석하면, 오계^{五戒}나 십선계^{+善戒} 가운데 투도^{盜戒}에 포함된다. 투도^盜란 훔치는 것, 즉 도둑질을 의미한다. 도둑은 주지 않는 것을 가져가는 것이다. 이를 불여취^{不與取}라고 한다. 단, 타인이 주지 않아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 물과 이를 닦는 나무이다. 이것은 임의로 가져가서 사용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 갈 수 없다. 그래서 남이 주지 않아도 물은 스스로 취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즉 빗물이나 강물은 주지 않아도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를 닦는 치목^{齒木}은 건강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취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치목^{齒木}을 양지^{楊枝}라고도 하는데, 베드나무 가지를 말한다.



이 나뭇가지를 썹어서 입 냄새를 제거하였기 때문에 누가 주지 않는
다 하더라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청결과 위생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불수식계^{不非時食戒}의 인연담은 다음과 같다.

『사분율』의 내용이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에
한 비구가 누더기를 입고 걸식하였는데, 때마침 시중의 거사들이 그들
의 죽은 아내, 부모, 형제, 일가친척들을 위하여 네거리나 성문 앞, 강가
의 나무 밑과 바위 옆, 사당 안에 음식을 차려 놓고 제사를 지냈다.

그때 걸식 갔던 비구들이 제사의 음식을 가져다 먹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사들이 비구들을 비난하자 부처님께서 그들을 크게 꾸짖으
시고, 다음과 같이 계를 제정하셨다.

“어떠한 비구라도 받지 않은 밥이나 약을 입에 넣으면 바일제가 되느
니라.” 이렇게 되자 이제는 비구들이 하천의 물이나 강가의 버들나무
마저도 제 손으로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니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이를
닦을 수도 없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맑은 물과 벼드나무 가지는 제
외한다.”고 계를 다시 제정하셨다. 여러 율장에서 위와 같은 계율의 조
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어떠한 비구라도 주지 않은 음식을 입에 넣으면 물과 양지^{楊枝}를 제외
하고 바일제이다. (팔리율)

만약 비구가 받지 않은 음식을 먹거나 혹은 약을 입 안에 넣으면 물과
양지를 제외하고 바일제이다. (사분율)

만약 비구가 받지 않은 음식을 입 안에 넣거나 음식을 훑으면 양지와
물을 제외하고 바일제이다. (오분율)

주지 않는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지만 함부로 가져가서도 안 된다. 특
히 주지 않는 것을 말없이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에 해당한다.

도둑질은 바일제가 아니라 오계를 저버리는 것이며, 십선계를 범하
는 것이며, 출가자의 경우는 중죄^{重罪}에 해당한다. 바라이죄를 범한 것인
기 때문이다. 자기 물건이 아니면 함부로 가져가거나 말없이 가져가서
는 안 된다.

설사 남는 물건이나 음식이라 하더라도 말없이 가져간다면 그것은
곧 투도^{偷盜}이다. 남는 물건에 공연히 욕심 부리지 말고, 말없이 가져가지
도 말라. 탐심^{貪心}과 투도^{偷盜}는 불공 공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악업^{惡業}
이다. ─

다음 오에서는 출가자의 행동과 몸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 성장기

이옥경

수필가·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①

입대한 아들에게서 소포가 왔다. '부모님께 보내는 장정 소포'라고 쓰인 상자 안에는 아들이 입었던 티셔츠며 바지, 속옷에 양말, 신발까지 차곡차곡 들어있다. 함께 보내온 편지를 펼쳐 들었지만 두 눈 가득 눈물이 차올라 한 줄도 읽을 수가 없다. 아들인 양, 아들의 웃을 가슴 깊이 겪안고 다독거려 본다. 땀 냄새가 묻어있는 아들의 체취가 고스란히 느껴진다.

또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는 아들의 성장을 믿고 기다려 보기로 한다. 혹독한 사춘기를 앓으며 방황했던 아들이 스스로 그 긴 터널을 빠져나와 건강하고 건전한 모습으로 돌아와 준 것처럼, 2년 후 아들은 더 멋지고 늠름한 어른이 되어 내 앞에 다시 설 것이다.

사실 나는 참 어리석은 부모였다. 바라는 것이 커던 만큼 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다. 그것도 '~해라'가 아니라 '~하지 마라'가 더 많았다.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마라,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마라,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마라, 공부할 때 한눈팔지 마라, 학원 빼먹지 마라, …마라, …마라, …마라!

'~해라'는 단 한 가지, 공부 열심히 해라뿐이었다. 게다가 아들을 위한다며 아들이 원하기도 전에, 아들의 뜻과 무관하게 모범답안을 만들어놓고 그 틀에 아들을 꿰어 맞추려 애면글면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범생을 만들고 싶었다. 공부든 운동이든 그 무엇이든 최고인 아들을 꿈꿨다. 그 때문에 아들의 24시간은 내 손안에 있어야 했다.

아들은 퉁겨 나갔다.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정말 중요한 시기였다.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거쳐서 집으로 돌아와 다시 책상 앞에 앉아야 할 시간이 훨씬 지나도록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다음 날도, 그리고 그다음 날도 아들은 학교에도 가지 않고, 휴대 전화도 꺼둔 채 종무소식이었다. 구석구석 PC방을 뒤지고, 친하게 지내던 몇몇 친구들을 다그치기도 했지만, 아들의 자취는 그 어디에서 도 찾을 수가 없었다.

나흘이 지났다. 나타나기만 하면 혼쭐을 내겠다던 처음의 다짐은 불길한 상상과 함께 간절한 기도로 바뀌어 있었다. 주인을 잃은 빈방에서 앨범 속, 활짝 웃는 아들의 사진을 한 장 한 장 짚어보면서 비로소 나는 깨달았다. 아들의 웃음을 본 게 언제였던가.

어렸을 때야 대통령이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으스대더니 지금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디가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무릎 맞대고 눈 마주치며 진심으로 귀 기울여 준 적이 없었다. 부끄럽고 미안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횡포, 아들은 그 피해자였다. 옛새째 되던 날 저녁에 아들이 돌아왔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들을 꼭 껴안아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눈물이 쏙 빠지게 야단을 치고 다짐을 받아야 한다는 주변 사람들의 충고도 있었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다.

조금 늦더라도, 넘어져 무릎이 깨지더라도, 잠시 한눈을 팔더라도 그건 아들의 몫이다.

다그치거나 조바심 내지 않고 제힘으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 주는 일, 그리고 말없이 응원해 주는 일,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단번에 속을 차린 것은 아니다. 그 후로도 두어 번 사고를 치기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아들은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와 주었고,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던 대학에도 들어갔다. 자신감도 넘치고 내 앞에 턱을 받치고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도 곧잘 늘어놓았다. 키가 자란 것처럼 마음도 크고 단단해진 모양이다.

아들 방에 들어가 아들 책상 앞에 앉아서, 아들이 쓰던 볼펜을 들어 아들에게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쓰는데 벌써 눈물이 난다. '네 웃 받고도 엄마는 울지 않았어. 엄마 씩씩하지?'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생각한다. 아들이 보낸 이 웃은 아들이 제대할 때까지 빨지 못할 것 같다고.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쏟살같이 흘러갔으면 좋겠다고.

②

며칠째 온 집안을 훌딱 뒤집어 정리하는 중이었다. 안 쓰는 물건을 없애기 위한 대공사였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으로 가볍게 살아가리라, 버리고 치우는 일로 몇 날 며칠 비지땀을 흘렸다.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십수 년째 열어보지도 않았던 종이상자 속 몇 권의 노트였고, 반성문에 가까운 이 감성적인 일기였다.



15년이 흘렀다. 그동안 아들은 제대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작년 여름 드디어 한 생명의 아버지가 되었다. 남들 하는 만큼 제 앞가림을 해나가기에 마음도 놓였거니와 딱 알맞은 나이에 결혼까지 해 주니 어려운 숙제라도 풀고 난 듯, 이제 더는 손기는 일이 없겠지 싶어 훌가분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저마다의 거리가 있어서 서로가 경계를 넘지 않아야 그 관계가 잘 유지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알콩달콩 신혼 재미를 누리라는 핑계로 아들네 집에는 거의 발걸음도 하지 않았던 내가 그만 풀 방구리에 드나드는 쥐 모양새가 되었으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본의 아닌 그 노릇은 손자가 어린이집에 맡겨지면서부터 시작됐다. 처음 한 달간은 적응 기간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며 손자를 태려와야 했는데, 아들을 낳아 길렀던 기억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생전 처음 해 보는 일인 양 모든 것이 어찌나 낯설고 힘든지 헛바늘이 다 돋을 지경이었다.

한 달이면 끝이겠거니 했더니 아뿔싸! 감기라는 복병을 예상치 못했다. 그 후로도 2~3주에 한 번씩 느닷없이 불려 나가, 최소 1주일씩 손자를 돌봐야 하는 일이 되풀이됐고, 지금도 열흘째 아들네를 오가

며 수족구병에 걸린 손자를 들보는 중이다. 평소에도 무가당, 무염, 무지방, 유기농을 고집해 온 며느리는 몸에 좋다는 이유식을 먹여보려고 애를 쓰지만 아픈 녀석은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울며 보채는 게 일이다. 간간하거나 달짝지근한 걸 좀 먹여 보라고 해도 최신 육아 정보를 꿰고 있는 며느리에게 30여 년 전의 구닥다리 경험치가 통할리 없다.

이럴 때는 시어머니의 권위(?)라는 카드가 유효하다. 제 어미야 읊상을 하고 있든 말든, 한사코 도리질만 하던 녀석이 꿀 한 숟가락 들풀 넝은 단호박 죽을 넙죽넙죽 받아먹기 시작하더니 집 간장으로 간을 해서 폭 달인 쇠고기 미역국에 뭉근하게 끓인 죽을 반 공기도 넘게 먹는다.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지 며느리가 죄송해요, 어머니 하며 웃는다.

살아 보니 이론보다는 경험에서 우리난 실제가 정답일 때가 참 많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세상사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아이의 입장이 되어 보기, 참 어렵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요즘 다시 깨닫는다. ─





이상해!!

올해는 남편과 뜻이 맞아 휴가를 함께 보냈다. 다른 가정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는 몇 해 전부터 휴가를 따로 보내고 있었다. 결혼하고 얼마 동안은 남편과 함께 휴가를 보냈는데 남편의 열정적인 탐험 정신과 운동량에 내가 먼저 지쳐서 휴가가 아니라 훈련하고 온 것 같았고, 그 여파로 병원에 다니기도 했다.

몇 번 그리고 나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휴가를 보내기로 하고 나니 평화로웠다.

여행을 자주 가기는 했지만 우리 가족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족과 함께 가는 여행이라 재미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술 마시는 사람들 틈에서 운전도 내가 해야 하고 친하지도 않는 사람과 열정적으로 그 지역을 돌아다녀서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이번 휴기는 우리 가족만 간다고 하니 피곤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라산에 오르자고 하면 절대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아 놓았다. 그 지역 명소를 탐험하듯이 가지는 않겠다고 다짐을 받았다. 제주도에 갈 때마다 늘 나 혼자 운전했고, 남편과 남편의 친구들 뒤치다꺼리를 해서 고생한 기억밖에 없다. 제주도는 아무 죄가 없지만 나는 제주도 가는 것이 싫었다.

이번에는 다르겠지 했는데 공항에 내리고 나서부터 좀 이상했다. 남편 친구가 마중을 나왔다. 나도 잘 아는 친구인데 언제 제주도로 이사했는지 몰랐다. 남편이 말하기를 친구 차를 여행 내내 타기로 했다. 점심 먹으려 갔더니 서울에서 보던 남편의 후배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제주도민만 안다는 맛집에서 물회를 먹고 부리나케 연주회를 구경하자고 해서 갔더니 어머나, 내가 알던 사람들이 또 거기에 있었다. 좀 이상했다. 신나는 연주를 듣고 흥에 겨워서 들썩거리는데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했다. 어머나, 아침에 봤던 남편의

친구와 또 제주도에 산다는 후배랑 제주에 올 때마다 만나는 남편의 선배도 계시고, 남편이 아는 제주도에 여행 와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 식당에 있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밥을 먹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 이런 분 위기 어찌 너무나 익숙하고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훤히 알 수 있는 이 느낌.

그래도 다행인 것이 술자리가 일찍 끝나고 다른 일정 때문에 다들 움직이느라 내가 할 일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에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다. 그래서 다 같이 탄산 온천에 갔다가 남편이 친구들과 연주회 보러 간 틈에 우리는 모래가 까맣다는 바닷가 2층 카페에서 비를 맞으며 써핑을 하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구경만 해도 재미있었다. 비가 앞이 안 보일정도로 내렸는데도 재미있었다.

저녁에는 남편과 어제 만난 사람들에 다른 사람이 또 보태져서 더 많은 사람들과 저녁을 먹었다. 제주에 와 있는지 몰랐던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제주에서 만난 것이 그렇게 즐겁고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다. 남편과 남편의 친구들과 선배들은 마치 몇 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처럼 기쁘게 포옹했다. 그런데 그걸 보는 나도 웃음이 났다. 저녁을 먹고 다음 약속 장소로 다들 모시고 간 것 정도는 그냥 할 만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것도 재미있었다. 그 모든 것들이 익숙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남편의 친구들이나 선배들하고 얼굴을 익혀서 그런 것인지 그렇게 싫지만은 않았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데 아마추어들이 공연을 하는데 가서 구경을 했다. 남편 친구들은 대부분 제주 국제 관악축제를 보기위해 온 것이었고 약속하지 않았는데 진짜 제주에서 만났다. 비 맞으면서 열정적인 연주를 듣는 것이 좋았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관객이 서른 명이 안 되었지만 다들 너무 즐거워했다. 나도 더 열심히 박수쳤다. 비웃 위로 비가 들이 부어도 재미있었다.

제주에서 재미있기는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미있었다. 심지어 다음에 다시 오자고 남편하고 약속까지 해버렸다. 그 때도 친구들을 부르겠지.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나는 친구가 별로 없는데 남편은 친구가 많아서 좀 부러웠다. 반가워서 포옹하는 것이 부러웠다. ‘여기 오면 네가 있을 줄 알았어.’ 하는 분위기로 다들 모이는 것이 부러웠다.

다음에는 모든 것이 더 재미있을 것 같았다. 다른 가족과 여행을 가도 재미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내가 좀 이상하다. ▲

깊은 밤 별레 옵니다.

반투명 창문에는

달빛이 어슬렁거립니다.

슬그머니

마당으로 나가봅니다.

훤한 얼굴로

달은 웃으며 반깁니다.

그대 떠나가고

잊고 싶었던 시간

그 어디에도 버릴 테가 없어

아직도 내 손위에 불들고

있습니다.

이 청록의 계절이 지나

잎새가 마르는 계절이 와도

그대와의 시간은

마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디 걸어 놓을 곳이라도 있으면

진정 그리하고 싶은데

나는 당신의 시간 속에서

아직도 돌아갑니다.



한국 명상 지도자 포럼에 다녀와서

묘원화 전수
벽룡사



총기 48년(2019년) 6월의 마지막 토요일

하반기 49일 대중법회를 마치고 서둘러 점심을 챙겼다. 먹는 둘 마는 둘 하며 거센 에어컨 바람에 시달릴 것 같아 큰 솔도 챙기고 필기구도 챙겨서 집을 나섰다. 2호선 신대방역에서 조계사까지 1시간 만에 가려니 빼듯하다.

1호선으로 갈아타고 종각역에 도착하길 기다리는데 옆에 개량한복을 입은 중년 여인이 두리번거리며 노선도를 살피고 있다. 개찰구에서 보니 그 여인이 옆으로 보인다. 3-1번 출구로 나서는데 그녀도 함께였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오늘 포럼이 열리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물까지 왔다. 1시 5분, 지하 공연장 가는 입구가 어디더라 가우뚱거리며 오른쪽으로 돌아 계단을 내려오니 그분도 나를 보고 뒤따라온다. 어디 가는지 물어보고 함께 와도 되는데 시간에 늦는다는

평계로 오늘 오후 일정을 함께할 벗을 그렇게 삭막하게 대했음이 마음을 쭉쭉 찌른다. 그 불편한 마음도 잠시, 포럼 회장 입구에서 있는 반가운 얼굴들을 보니 신나고 설렌다. 공연장 안에서 인사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걸 들으니 지체할 시간이 없다. 서둘러 들어간 공연장에는 빈자리가 드물다. 간신히 비집고 들어가 좁은 공간에 자리 잡으니 포럼에 대한 열기가 뛰다시피 걸어온 나의 몸뚱이보다 더 뜨겁다. 어렵게도 금강선원장이신 혜거스님 인사말씀은 듣지 못했다.

함양에 있는 행복마을 동사섭을 이끌고 계신 용타스님의 기조발제부터 들을 수 있었다. 용타스님은 포럼의 주제인 명상과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 내려 주셨다. 명상이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힌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그 생각 끝에 나온 답이 깨달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깨달음에는 단계가 있어서 명상하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 이해의 정도가 다르니 중생들의 깨달음은 대부분이 유위법이며, 무위법을 깨달았을 때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다.'라고 하신다.

용타스님은 여러 명상법 중에서도 오리지널은 '석가모니의 명상법' 이므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알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셨다. 개인적으로 그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다. 그래서 요즘 초기불교가 전 세계적으로 힘을 얻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이런 취지에 따라 오늘 포럼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불교 수행법들이 골고루 소개되었다.



※한국명상지도자 포럼 일정표

시간	내용	진행
12:30~13:00	등록 및 접수	
13:00~13:10	포럼안내	진행: 박희스님 사회: 인경스님
13:10~13:20	인사말씀	헤거스님
13:20~13:50	기조발제	옹타스님
13:50~14:05	초기불교의 입장에서 본 명상과 깨달음	발 표: 김열권님
14:10~14:25		토 론: 김재성님
14:25~14:30	티벳불교의 입장에서 본 명상과 깨달음	발 표: 오상목님
14:25~14:30		토 론: 융수스님
14:30~15:10	질의응답 (초기불교, 티벳불교)	
15:10~15:20	휴식시간	
15:20~15:35	자비선 입장에서 본 명상과 깨달음	발 표: 지운스님
15:35~15:40		토 론: 월호스님
15:40~15:55	참선불교의 입장에서 본 명상과 깨달음	발 표: 박희승님
15:55~16:00		토 론: 철우스님
16:00~16:40	질의응답 (자비선, 참선불교)	
16:40~18:00	종합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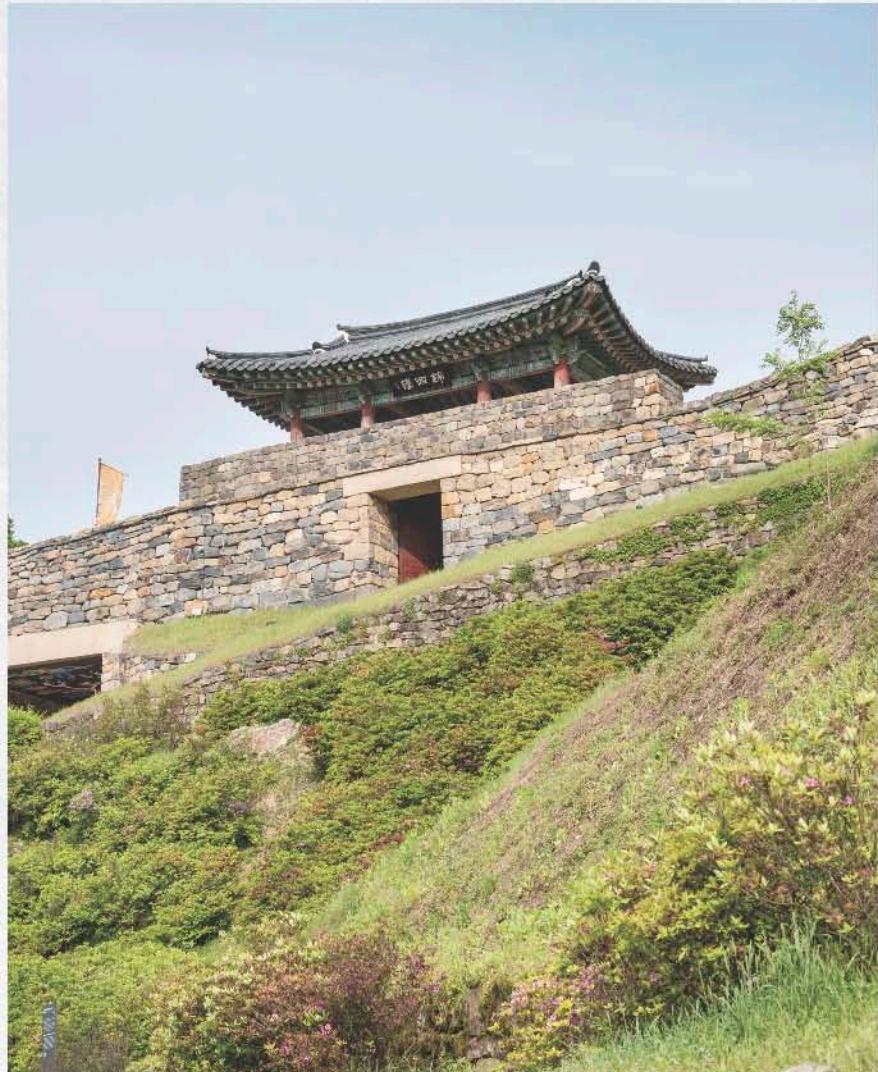
앞으로 포럼에서 발표된 각각의 수행법들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오늘은 지면상 그날의 분위기를 전하는 걸로 마무리 해야겠다. 초기 불교와 티벳불교가 생소함에도 청중들은 신기함과 호기심을 가지고 경청하려고 노력했다. 관련 불자들의 참여도 높아 질문의 질도 우수 했다. 미얀마, 태국, 티벳에서 직접 수행하신 명상 지도자들과 스님의 발표와 토론, 안내는 감명 깊었다.

밀교 종단을 표방하는 불교 총지종의 스승으로 티벳불교에 대해서 더욱 깊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의자가 많이 빌 거라는 나의 예상은 빗나갔다. 10분의 짧은 휴식 후에 지운스님께서 새로이 창안한 '자비선'이라는 개념의 수행법과 성철 스님의 참선불교를 연구하는 모임의 연구실장 박희승님의 발표와 열띤 토론에 청중들은 더욱 집중했다.

포럼 회장 대여 시간이 끝나 수많은 질문들을 묻어둔 채 아쉬움 속에서 끝나는 토론장 속에서 언제 5시간이 훌쩍 지나갔는지 지루함이라든가 괴로움은 없었다. 함께 오려고 했던 분의 부재가 아쉬울 따름이었다. 그 정도로 몰입해 있었다. 흥미로웠고 유익했으며 불교명상의 긍정적인 미래를 보았다.

근래 명상에 대한 관심과 호응은 대단하다. 오늘 모인 사람들만 해도 그 규모와 열정에 기슴이 먹먹하다. 명상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 활용되면서 불교계에도 걱정과 낙관이 공존 한다. 5시간 동안 핸드폰 벨이 한 번도 울린 적이 없음을 볼 때 포럼에 참여한 불자들의 자극한 진심을 엿볼 수 있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게 수행하시고, 무엇을 깨달으셨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말이다. 회장을 나서면서 같이 왔던 여자 분을 찾아봤다.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만난 도반님, 또 만나고 싶습니다. 서원당에서. ━

역사라는 거울



최익현(崔益鉉)

1833~1906
위정척사론을 실천한
최고령 의병장



人無此性

則人必死

國無此道

則國必亡

인무차성

즉인필사

국무차도

즉국필망

사람이 천성이 없다면

사람은 반드시 죽고

국가가 도[신의]가 없다면

국가는 반드시 망한다.

- 최익현(崔益鉉, 1833~1906), 『면암집(勉菴集)』
권16 「기일본정부(寄日本政府)」



이 글은 면암_{勉菴}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이 1906년 윤4월 13일에 태안_{泰安}의 무성서원_{武城書院}에서 의병을 일으킨 뒤 왜국공관에 보낸 〈기일본정부_{寄日本政府}〉의 서두입니다.

이 글의 전후를 소개합니다.

오호라! 국가에 충성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천성이라 하고 신뢰를 지키고 의리를 밝히는 것을 도라고 한다. 사람이 이 천성이 없다면

사람은 반드시 죽고 국가가 이 도가 없다면 국가는 반드시 망한다. 이는 완고한 늙은 서생의 예사로운 말일 뿐만 아니라 비록 개화기에 경쟁하는 열국일지라도 이 도를 버리면 또한 세계 속에 자립할 수 없을 것이다.

[嗚呼 悲國愛人曰性 守信明義曰道 人無此性 則人必死 國無此道 則國必亡 人無此性 則人必死 國無此道 則國必亡 此不惟頑固者生之常談 抑雖開化競爭之列國 捨此恐亦無以自立於世界之間矣]

이 글을 통해 보면 면암은 일본이 조선에 대해 신의를 저버린 16개 조항을 나열하여 그 죄상을 성토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본의 행태는 조선에 화를 끼칠 뿐만 아니라 동양 전체에 화를 미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이 같은 행동을 지속할 경우 반드시 일본은 멸망의 길을 걸게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비록 면암은 이 해 11월 유배지인 대마도에서 순국하지만 불과 40년 뒤 면암의 예언처럼 일본은 세계 속에 자립하지 못하고 패망하고 말았으니, 그의 선견지명이 탁월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의란 개인 간에 지켜야 할 믿음이요 의리일 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요소입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정치인들은 약

100여 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신의를 정치적 수단이든 또 다른 목적이든 간에 현신짝처럼 저버리고 온갖 억지와 망언으로 우리를 팽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 신의를 저버리고 무력을 앞세워 주변국을 팽박하던 일본은 결국 패망하고 말았으니, 역사라는 거울이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한 이웃 나라 정치인들에게 또 한 번 이 글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우리 역시 저들과 마찬가지로 역사를 망각하고 있거나 않는지 냉철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00여 년 전과 같이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고 사분오열 분열되어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한다면 또다시 잘못된 역사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해설 | 한국고전번역원 권현준 선임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한문 고전의 수집·정리·번역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기관

모으는 데 집착하지 말자 칼란코에-Kalanchoe



당신은 무엇을 모으고 있나요?

꿀벌은 벌집에 부지런히 꿀을 모아 놓고, 다람쥐는 땅속 집에 차곡차곡 도토리를 모아 놓는다. 제비는 처마 밑에 둥지를 짓기 위해 풀과 진흙을 모으고, 비버는 강가에 집을 짓기 위해 나뭇가지를 모운다.

이처럼 생존을 위한 동물들의 모으기 행동, 우리는 이것을 '본능'이라고 말한다. 누구에게 배웠다기보다는 동물을 스스로 익힌 행동이다.

이태용
원예 교육가

물론 무언가를 모으려는 본능은 우리 인간에게도 있다. 모으는 걸 목적으로 삼을 때 이를 흔히 '수집'이라고 부른다. 모은다는 의식 없이 알게 모르게 모으는 경우도 있다. 저 또한 어릴 적에는 구슬이나 딱지, 납작하게 편 병뚜껑처럼 자질구레한 물건을 많이 모았다.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어서는 음악 CD와 책을 주로 모았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모으고 있을까? 지금껏 내가 가장 많이 모아 놓은 것은 무엇일까?

물을 모으는 식물

칼란코에는 125종이 넘는 품종이 있지만, 그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종류는 칼란코에 블로스펠디아나와 칼란디바가 있다.

칼란코에 블로스펠디아나는 우리가 꽃시장에서 흔히 보는 그 칼란코에이고, 칼란디바는 기존 칼란코에를 겹꽃으로 만든 것이다. 칼란코에는 마다가스카르가 고향이다. 마다가스카르가 어디야? 고개를 갸우뚱거릴 분도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남동쪽으로 386킬로미터 떨어진 곳, 바로 그곳에 떠 있는 섬나라가 마다가스카르이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칼란코에는 주로 척박한 지역에 살고 있다. 비가 자주 오지 않고, 오더라도 금세 말라 버려 늘 물이 부족한 곳이다. 그래서 칼란코에는 비상시를 대비해 늘 잎에 물을 저장해둔다.

혹시 지금 칼란코에가 옆에 있다면 양 손가락을 칼란코에의 일 양쪽에 대고 살짝 눌러 보세요. 손가락이 촉촉해질 만큼 물기가 묻어날 것이다. 두툼한 일 속에 물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칼란코에는 건조한 환경에 잘 버티는 편이다. 오히려 습한 환경에서는 일이 무르고 썩어서 죽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생태만 잘 한다면 칼란코에 키우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화분의 곁흙이 바싹 말라 일에 목마른 표정이 나타날 때 바로 그 순간 물을 주면 된다.

그 다음부터는 칼란코에 알아서 잘 자라나 걱정할 게 전혀 없다. 이렇게 칼란코에처럼 몸에 물을 저장해 두는 식물을 우리는 흔히 '다육식물'이라고 부른다. 칼란코에는 일에 저장하지만, 줄기나 몸 전체에 물을 저장하는 식물도 있다.

'다육식물'이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많을 다와 고기 육, 즉 고기가 많다는 뜻이다. 이는 두툼한 일이나 통통한 줄기의 모습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다육식물에는 칼란코에처럼 돌나물과 식물만 있는 것은 아니고, 백합과와 국화과를 비롯해 50여 과의 식물이 포함되어 있다.

전 세계와 사막과 고원지대 근처에서 자라고 있는데, 칼란코에의 고향인 마ダ가스카르는 특히나 많은 종류의 다육식물이 살고 있다.

남들 따라 모으지는 말자

칼란코에가 생존을 위해 물을 모으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무엇인가를 모으기 시작할 것이다. 지식을 모으는 아이, 돈을 모으는 아이, 친구들 모으는 아이, 명예를 모으는 아이… 각자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열심히 모으겠지요.

이 중에는 분명 모으는 일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인생의 또 다른 중요한 것을 놓치는 아이도 나올 테고, 왜 무엇을 모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남들 흉내만 내며 인생을 보내는 아이도 나올 것이다. 이처럼 언젠가 우리 아이가 모으는 일로 고민하고 힘들어 할 때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 아빠는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

멋진 조언이나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인생의 화두로 삼도록 칼란코에 화분을 하나 선물해도 근사할 것 같다.

너무 많은 물을 주면 무르고 썩어 버리는 칼란코에를 보면서 아이 스스로 자신의 욕심을 조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으고 지키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정작 중요한 것은 놓쳐버린 어른들. 우리 아이들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말라 버린 소젖



어떤 사람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손님에게 소의 젖을 모아 대접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그 손님에게 소의 젖을 짜서 대접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일 오는 손님에게 소의 젖을 짜서 대접하는 것이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젖을 짜서 두면 소의 젖이 점점 많아져 둘 장소도 사라지고 또 한 맷도 변질되어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소의 배속에 젖을 모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한꺼번에 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는 그는 당장 어미 소와 송아지를 떼어 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송아지는 어미젖을 먹지 못해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

니다. 그 후 한 달이 지나 손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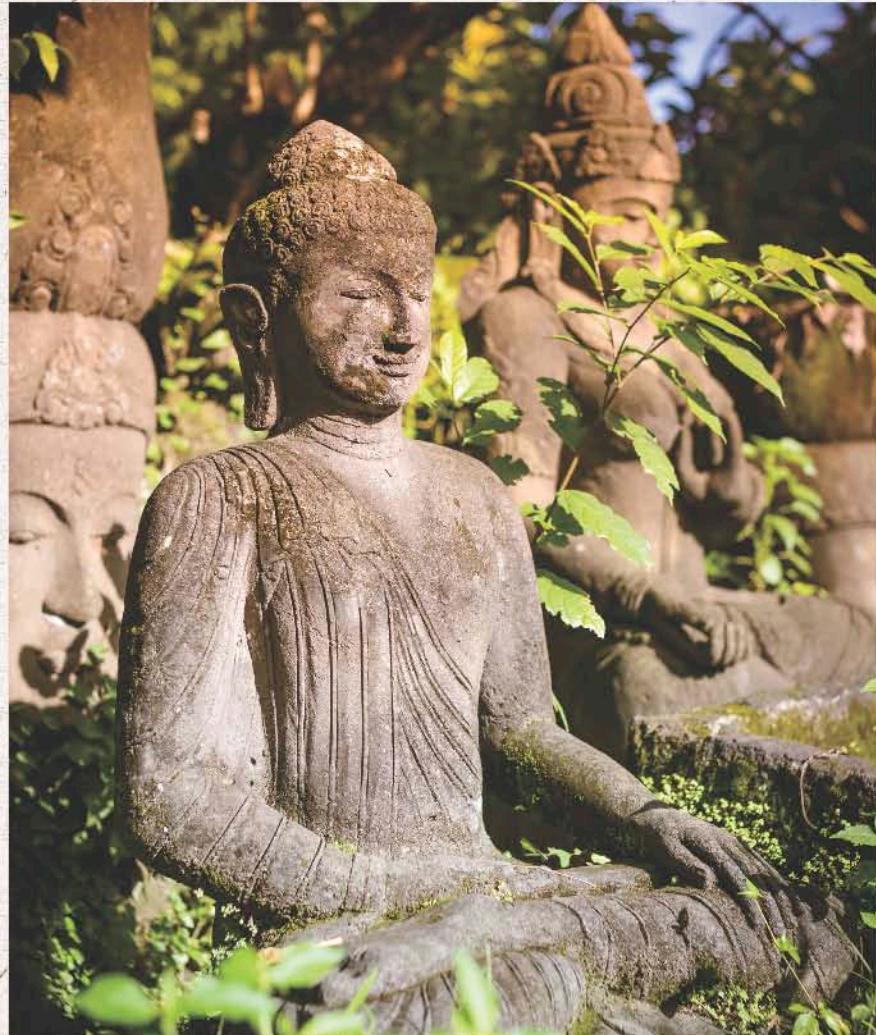
그는 음식을 대접하고 소의 젖을 짜려고 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말라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손님들은 그 동안의 이야기를 듣고 그 어리석은 사람을 비웃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도 이와 같아서, ‘내게 재물이 많이 쌓인 뒤에 한꺼번에 보시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재물을 모으기도 전에 수재나 화재 혹은 도적을 당하거나 혹은 갑자기 목숨을 마치는 때도 있다.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보시하지 못한다. 그도 저와 같은 것이다.▲

수행 修行

덕현 선수
법천사



수행^{修行}은 닦을 수*, 행할 행†, 즉 닦아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수행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1년 365일 몸과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매일 수행을 하다보면 우리는 무언가 몸과 마음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부처님을 믿는 불자로서 서원당에 나와서 행동이나 말투가 상스럽거나 꼽지 않다면 절에 열심히 다니는 것이 부끄러울 때입니다. 그것은 학생이 가방만 들고 학교에 왔다갔다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행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염주를 쥐고서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다면 그것은 바른 수행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바른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바른 생각, 바른 몸가짐, 바른 실천, 바른 기억, 바른 의지, 바른 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마르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바른 생각을 가지지 못한다면, 수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자만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스스로 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많이 달라졌네.' 하고 인정해줘야 제대로 수행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 많이 달라졌다고 자화자찬한다면, 그것은 수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이상의 업을 쌓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스스로 수행을 많이 했다고 자신의 입으로 말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관대한 주관적 평가보다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 평가가 중요합니다.

수행의 깊이는 내면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있으며, 그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에 있습니다. 나를 수행을 한다면서도 거침없이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한다면 자신에겐 악업이 되고 상대에게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수행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은 어떠한가?' 우리의 수행은 방법에서는 진언염송이며, 실천에서는 육바라밀과 십선업입니다.

매일 하는 진언염송과 함께 악업을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선을 가까이 하여 악을 멀리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을 가까이 하여 선업을 많이 쌓으면, 우리의 신심은 깊어집니다. 깊어진 신심 속에 자신의 발

원은 분명히 성취되고, 정신적으로는 성숙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이루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가 어떻게 수행의 바른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필자는 정해진 시간 이외에 마음이 복잡하거나 심란할 때마다 서원당에 앉아 염주를 조용히 굴리며 자신을 살펴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처님을 떠올리며 진언을 읊조리다 보면, 나의 마음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잘못된 말과 어리석은 행동들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마음으로 단속합니다. 수행은 안으로 단속하고 밖으로는 한없이 베푸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해봅니다. ━



순수 시인 윤동주

자성 전수
법성사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노래한 순수 시인 윤동주…

요즘 극장가에는 독립에 관련된 영화들이 많은 관심 속에서 다시 재조명되고 또한 상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윤동주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 한 편이 생각나서 시인의 마음을 되새겨 보려합니다.

‘동주’라는 영화는 과거 암울했던 일제시대를 흑백으로 표현한 윤동주 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인 윤동주와 정몽규는 한 마을에서 태어난 동갑내기 사촌지간입니다. 일제 강점기 윤동주는 시인을 꿈꾸었고 정몽규는 독립운동에 뜻을 둔 유능한 청년들 이었습니다. 연희 전문학교를 다니다 두 사람은 창씨개명을 요구하는 조선을 떠나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윤동주는 자필로 쓴 원고를 모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을 붙여 첫 시집을 출간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제에 의해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을 눈치 채고 그 중 한 부를 연희전문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벗인 정병욱에게 건네 주고, 윤동주는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되고 정병욱마저 전쟁에 끌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정병욱은 어머니에게 원고를 부탁하고 노모는 그 원고를 잘 간직하여 해방이 되자 아들 정병욱에게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마침내 윤동주의 유고시집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조선유학생 강제징용을 피하려던 정몽규 마저도 체포되어 두 사람은 후쿠오카 감옥에 투옥되어 억울하게 2년형을 선고받고 생체실험의 대상이 되어 이름모를 주사를 매일 맞으며 점점 피폐해지는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수많은 조선의 젊은이들이 생체실험으로 인해 고통 받으며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그려집니다...

광복 6개월을 앞두고 일본의 차디찬 감옥에서 윤동주는 고통스럽게 29살 젊은 나이에 원인 모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윤동주의 시신

을 수습하려 일본으로 건너간 아버지는 피골이 상접한 정몽규를 만나게 되고 생체실험의 증언을 털어 놓은 후 20여일 뒤 정몽규 마저도 윤동주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독립투쟁의 투사도 아니었고 당대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시인도 아닌 평범한 한 젊은이가 어둡고 가난한 시대에 인간의 삶과 고뇌를 사색하고 일제의 강압에 고통받는 조국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순수 문학을 꿈꾸던 윤동주의 마음을 생각하면 기습이 지금도 먹먹해집니다....

일제 강점기 너무나도 젊은 삶을 살다간 시인 윤동주... 솔바닥 만한 감옥 창살 밖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지은 '별 해는 밤'은 너무나도 슬프고도 아름다운 한편의 서정시입니다..

별하나에 추억과
별하나에 사랑과
별하나에 쓸쓸함과
별하나에 동경과
별하나에 시와
별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이하 생략)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국어시간에 읊조리던 '서시'마저도 오늘은 너 무나도 구슬픈 이야기로 들려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서시]
— [윤동주]





모든 병은 치유될 수 있다! 누구든 반드시 질병을 인생에서 절절 끌고 다니는 운명으로 정해진 사람은 없다. 삶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는 아프지 않은 상태다. 자연 그대로는 언제나 완전하다. 우리는 언제나 아프지 않았던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회귀하고 있는 중에 있다. 자연 치유력은 단 한 순간도 작동을 하지 않을 때가 없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 치유는 언제나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본래 건강한 자연 상태의 나에게 질병이 온 이유는 무엇일까? 질병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온다.

첫째, 그것은 나를 깨어나게 하고, 인생의 의미를 배우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참된 진실, 진리의 근원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배움과 귀의^{皈依}의 여정이다. 그런데 배움과 깨우침이란 언제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좋은 일, 행복, 기쁨, 건강을 통해서도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지만, 그 반대를 통해서도 균형 있게 깨달아 가야 하는 것이다. 즉 건강 속에서 깨닫는 만큼 질병 속에서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이 언제나 역동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파장으로써 행·불행, 건강과 질병 등이 다이나믹하게 연출되고 있는 이유다. 삶은 하나의 파동이다. 파동은 언제나 골과 마루로 이어지듯 삶 또한 건강과 질병, 행복과 불행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건강할 때,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면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 낼 수 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일과 목표에 집착할 때 우주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잠시 월 수 있도록 질병을 만들어 내 주기도 한다. 우주는 언제나 삶의 중도와 균형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질병을 통해 너무 집착하지 말고, 목적만을 향해 달려가지 말아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과 깨우침을 얻게 되는 것이다.

병의 두 번째 이유는 업장소멸, 카르마의 정화에 있다. 쉽게 말해 내면의 어둡고 탁한 부분이 병을 통해 풀려나가는 것이다. 즉 업장이 소멸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병이 생겨나는 것이다.

우주법계의 진리는 언제나 업장이 소멸되어야 할 가장 정확한 때를 알고 있다. 내 안에 켜켜이 쌓인 업장의 어둡고 탁한 덩어리들이 빠져



나감으로써 우리 몸은 한결 가볍고 청정하게 정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병은 목적이 있어서 찾아온다. 그것도 나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아닌, 나를 진정으로 살리고 돋기 위한 무한한 사랑과 대자대비한 이유를 가지고 찾아오는 것이다!

부처님은, 진리는 결코 우리를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는다. 온갖 질병을 만들어 내고 그 속으로 당신을 집어던지지 않는다. 그것을 하는 쪽은 오히려 내 쪽이다. 그러니 질병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결코 그 누구를 원망할 수는 없다. 외부를 탓 할 것은 없다. 자기 자신의 결정이며 책임이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참된 치유는 이러한 자기 책임임을 깨닫는 테서부터 시작된다. 병의 원인이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그 치유의 힘 또한 외부가 아닌 내면에 두게 되기 때문이다. 그 때 비로소 치유할 수 있는 내적인 힘과 지혜가 생겨난다. 우주법계의 근원적 에너지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기에 우리는 자연 상태에 있을 때 언제나 자비와 사랑의 끊임없는 보살핌을 받는 상태에 있다. 이 우주는 언제나 우리를 완전한 치유의 상태로 이끌고 있으며, 나 자신의 내적 치유력 또한 언제나 완벽하게 작동하며 나 자신을 돋고 있다. 사실 질병은 최악이 아닌 최선으로써 온 것이며, 문제가 아닌 ‘문제의 해결과정’으로써 찾아온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깊이 상심하지 말라. 그것은 곧 하나의 커다란 전환과 변화의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새롭게 깨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과거의 농눅한 짜꺼기들을 털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온 것이다. 병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병을 받아들이고, 그 병이 찾아온으로써 내게 깨닫게 해주고자 한 배움이 무엇인지를 살펴며, 그 병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병에서 벗어나려고 애써오던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 병 속으로 뛰어들어 그것과 함께 있어 주기를 선택하라. 아픔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충분히 받아들여 아파해 주라. 병에서 벗어나려고 거부하는 마음을 들이켜 병이 온 목적을 받아들여 병을 수용하고 사랑해 보라.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것과 함께 있어주기를 선택할 때 나라는 존재의 깊은 심연에서는 본질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비로소 그 때 내적인 참된 치유는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병원의 치료도 다 그만두라는 말은 아니다. 의심하지 말고, 이 치료가 약사여래의 손길이라는 마음으로 턱 내맡긴 채 나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내면의 수용과 관찰과 사랑이라는 참된 치유의 수행을 해 나가면 된다. 그렇게 된다면 둘이 아닌 우주법계의 법신 부처님과 내면의 자성부처님이 다차원적인 도움으로 우리를 깨어나게, 치유되게 할 것이다. 이처럼 내면에서 치유가 시작되면 이 우주 전체가 나를 돋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치유될 수 있다. ♡

- BBS 불교방송 라디오 ‘법상스님의 목탁소리’



영화 <그린 북>

지현 전수
자석사



이 영화는 2019년 아카데미에서 작품상과 각본상, 남우조연상을 수상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월 상영되었다. 우연한 기회에 이런 의미 있는 영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늦었지만 집에서 TV로 시청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교양과 우아함을 갖춘 바른 생활 사나이, 흑인 천재 피아니스트인 돈 셜리와 원칙보다 입담과 주먹만 믿고 살아온 다혈질 이탈리아계 백인인 토니 발레롱가의 우정이야기인 <그린 북>은 인종차별이 있던 196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한 실화를 바탕으로 담고 있다.

일하던 나이트클럽이 내부수리에 들어가 2개월간 일자리를 잃은 토니는 돈 셜리의 운전기사 면접을 보려 간다. 돈은 흑인 신분으로서는 매우 위험할 수도 있는 미국 남부 공연 여행에서 운전과 보디가드를 해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

영화 초반, 흑인에 대한 토니의 인식은 자신의 집 수도관 수리를 한 흑인 노동자가 마신 음료수 컵을 병원균으로 오염된 더러운 물건을 만지듯 염지와 겸지만 이용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을 통해 드러난다,

하지만 토니는 공연여행 중 돈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인종차별에 대항하여 그를 지키려 하고, 둘은 점차 우정을 쌓게 된다.

백악관에 초대될 정도로 유명하고 피아니스트로 인정을 받는 돈 셜리가 남부지방 공연을 다니는 과정 과정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연주를 제외한 모든 일상에서 온갖 차별을 받게 될 때마다 토니는 돈을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준다.

공연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흑백의 피부색을 지닌 사실만으로도 전혀 맞지 않으리라 기대했던 두 남자가 점차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동화 되어가는 과정이 무척 유쾌했고 감동스러웠다.

사실 이런 설정들이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많이 아이러니한 것이, 당시만 해도 절대적인 우월한 위치에 있었을 백인이 차별의 대상인 흑인에게 고용되었지만 오히려 현실적인 난관에서는 그를 보호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백인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흑인을 보호하는 백인의 우월함을 더 드러내기 위한 차별적인 영화라는 비판을 한쪽에서 받는 이유인지도 모른다. 물론 어떤 평가이든 감상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1960년대 미국의 인종차별 상황에서 부와 명예를 가진 흑인과 그에 고용된 기사가 주먹과 허세 가득한 백인이라는 설정 등에서 이 영화가 시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영화를 통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갈 때 이 영화의 가치가 더 돋보이지 않을까 한다. 사실 이런 짧은 감상평으로는 이 영화가 담고 있는 가벼운 듯 묵직한 내용을 다 담을 수도, 영화의 작품성을 평가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으니 솔직히 아쉽다.

하지만 그러기에 이 영화를 꼭 직접 보라고 추천하는 묘수일 수도 있겠다. 흑여라도 다른 피부색,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생명은 존귀하고 평등하다는 부처님의 진리가 제대로 와닿을 수 있는 작품이다.

아무튼 무덥고 지친 여름날 잠깐이라도 마음이 시원해지고 흐뭇해지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할 수 있어 행복한 마음이다. ━



제목 '그린 북'은 흑백차별이 있었을 시절에 흑인이 여행할 때 묵을 수 있는 숙소 등을 정리한 일종의 흑인 전용 가이드북의 이름이다. 존재 자체가 차별의 산물인 것이다.

이불 공주는 누가 깨울까 3

- 잠자는 숲 속의 공주 -

박현희
사회과 교사



묻지 마 이불 공주를 깨우려면

엄친딸 이불 공주에게는 그래도 쟁겨 주는 부모가 있다. 알바 이불 공주는 그래도 일이라도 한다. 하지만 묻지 마 이불 공주에게는 아무도, 아무것도 없다. 계속되는 경쟁에서 끝없이 밀려나면서 학습된 무력감만 가슴에 체기처럼 꾸역꾸역 쌓여 가고 있는데,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삶에 활력을 줄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적어도 학교에는 없다. 절망은 잠을 부른다. 무력감은 신체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나는 마녀의 저주를 피해 탑에 유폐된 공주가 끝없는 잠에 빠져든 것은 무력감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마녀의 마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마녀가 저주의 마법을 건 순간부터가 아니라 어른들이 그 말을 믿고 공주를 탑에 가둔 그 순간부터일 것이다. 마녀는 마력을 발휘할 필요조차 없었다.

기억도 할 수 없는 어린 날에 마녀가 던져 놓은 한마디. “이 아이는 자라서 물레 바늘에 찔려 죽을 것이야.”에 놀란 왕과 왕비, 즉 공주의 부모는 공주를 탑에 가둔다. 물레 바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만든 것이다. 탑에 갇힌 공주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위험도 없지만 도전도 없다. 싸울 사람도 없지만 사랑할 사람도 없다.

힘든 일도 없지만 성취할 일도 없다. 이 고립된 탑을 세상 전부로 알고 살아 온 공주가 깊은 잠으로 도파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 왕자님의 키스로 공주님이 깨어난 것도 별로 놀라운 마법은 아니다.

공주님은 왕자님의 키스에서 새로운 희망을 알아챘을 것이다. 자신을 무력감의 탑에서 꺼내 줄 사람, 웃고 울고, 사랑하고, 지지고 뷔고, 행복과 불행을 느낄 수 있게 해줄 누군가가 드디어 나타났다는 것을, 왕자님이 공주님의 나라와는 무관한 외부인이라는 것은 공주님을 탑에 가두는 데 공모하지 않은 이라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문지 마 이불 공주에게 필요한 것은 꿈이다. 꿈을 꾸는 것을 허락하는 사회이다. 그에게 관심을 갖고 소중하게 여겨 주는 누군가의 존재이다.

졸음은 힘이 세다

이불 공주처럼 대놓고 이불을 껴내 들지는 않더라도 많은 아이들이 수업 틈틈이 반수면 상태로 빠져든다. 잠이 짹 달아나게 수업하면 되지 않느냐고. 교사의 무능을 질책할 수도 있다.

맞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천하장사 삼손도 잠 때문에 머리카락을 잘리고 구차한 신세가 되지 않았던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곳곳에 붙여 있는 경고문이 있지 않은가. 졸음운전은 위험하니 잠시 차를 세우고 한숨 자고 운전하라고. 맞다. 졸린 사람은 자야 한다.

1970~1980년대 민주화운동사를 보면 '잠 안 재우기'가 얼마나 악질적인 고문인지를 알 수 있다. 졸음은 정말 힘이 세다. 1교시 시작 전부터 졸린 아이들을 7교시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방과 후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까지 맨 정신으로 끌고 가는 것은 이미 '수업 스키클'의 문제 가 아니다. 오후 4시도 되기 전에 7교시의 숨 가쁜 일과가 끝나도 아직 바깥은 훨하고, 입시가 목전인 아이들을 그대로 귀가시키기에는 민망한 시간이다.

시간표에는 있지도 않은 8교시, 9교시를 할 수 있도록 등교 시간을 앞당긴 것이다. 하교 후에도 아이들의 일과는 끝나지 않는다. 아이들은 새벽 1시나 2시 정도가 돼야 피곤한 몸을 누일 수 있다.

누가 이불 공주를 깨울까?

이불 공주는 자꾸 늘어난다. 어른들은 말한다. 늦은 시간까지 공부 하느라 학교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집에 와서 인터넷 하느라 그렇다고.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집중하지 않고 땐짓만 한다고.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일만 하고 사나? 쓸데없는 짓도 하면서 살아야 숨통이 트이지. 아이들도 다 저 살자고 땐짓을 하는 것이다. 그래도 공부가 부족하다며 일제고사 보면서 국가가 학생들 성적도 관리하고, '사교육 없는 학교'를 지정해서 보충수업을 강화하겠다는 분들께 말하고 싶다. 당신들이 와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고.

아이들의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무력감이 쌓인 탓이지, 학습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



차를 마실 때 주의해야 할 것들…

김정애
다도전문가
정각사교도



1. 차를 공복에 마시지 않을 것

빈속에 차를 마시게 되면 차의 성질이 폐부^{肺腑}로 스며들어 비^肺와 위^胃를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빈속일 때는 먼저 다식을 먹고서 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2. 너무 뜨거운 차를 마시지 않을 것

너무 뜨거운 차는 인후, 식도, 위를 강하게 자극하고 장기적으로 마시면 이런 기관들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2~63°C 이상의 차를 마시게 되면 위벽과 식도가 쉽게 손상을 받아 위병에 걸리거나 식도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물의 적정 온도는 56°C 이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너무 차가운 냉차를 마시지 않을 것

너무 차가운 차를 자주 마시게 되면 몸속에 담과 가래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따뜻하게 해서 마시는 차는 사람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며 몸의 기운을 편안하게 해 주며 눈과 귀를 밝게 해 준다고 합니다.

4. 차를 너무 진하게 우러지 않을 것

진한 차는 카페인 함량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수면 장애와 두통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지방분해 성분도 있어 간혹 다이어트하시는 분들 중에 차를 우려서 물처럼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카페인 섭취가 많아져 몸에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차를 우리는 시간을 길게 하지 않을 것

차를 오래 우리게 되면 차의 주성분인 폴리페놀, 유지, 방향물질 등이 산화되어 찻물의 색은 어둡고 탁해지며 맛이 차가우며 향기가 없어져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찻잎속의 비타민 C와 P, 아미노산이 산화되거나 감소되어 영양가치도 크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려 두는 시간이 길면 찻물 속에 미생물이 증식하여 배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 차를 여러 번 우려내지 않을 것

녹차의 경우 3번 정도 우려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첫 번째 찻잎을 우려내면 50% 정도 침출량이 나오고 두 번째는 30%, 세 번째는 10%, 네 번째는 1~3% 정도가 나옵니다. 그 이상 우려내면 찻잎속의 해로운 성분이 우려나오기 때문입니다.

7. 식사 직전과 식후에 바로 차를 마시지 않을 것

식사 전에 차를 마시면 위액을 희석하고 차의 찬 성질이 위의 연동 운동을 방해해서 식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단백질의 음식을 섭취한 뒤 바로 차를 마시면 찻잎의 탄닌 성분이 음식물의 단백질과 철에 대한 응고 작용을 해서 소화기능을 저하시키고 흡수를

방해합니다. 차는 항상 식사를 충분히 하고 마시는 것이 좋으며 식후에는 30분 후부터 마시길 권합니다.

8. 차와 약을 함께 먹지 않을 것

차의 탄닌 성분이 약을 용고시키기 때문에 약의 성분들이 몸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게 됩니다. 차는 약을 먹기 전후로 30분의 간격을 두고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9. 묵은 차를 마시지 않을 것

오래된 묵은 차는 차의 비타민이 소멸되고 단백질과 당분이 세균과 곰팡이의 좋은 원료가 되어 마시게 되면 몸을 상하게 합니다. 다만 묵은 차라도 풍부한 산류와 불소가 함유되어 있어 매일 묵은 찻물로 아침 이틀 닦거나 식후에 입을 헹구어 내면 입안이 시원하고 또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차를 마시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차의 좋은 점을 알고 마시는 것과 같이 차를 마시지 않아야 할 때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것도 과하지 않게, 차 또한 적당히 즐겨 마시는 현명한 다인종이 되길 바랍니다. ■



함께라서 좋은 합창

여순애
자석사교도

만다라합창단에 들어서 49재에 참석한 건 오늘이 두 번째다.

3곡을 외워서 불러야한다는 부담감과 선배들의 장장한 노래솜씨에 따라갈 수 없는 노래 실력..... 그래도 가사를 보지 않고 외어서 선배들 의 호흡에 맞추어 불러보았다.

주변 단원들의 음력이 나에게 들리면서 내 목소리를 조절하고 배에 힘을 주어 목에서 나는 소리를 없애야 한다. 표정이 굳어선 안 되고 입모 양은 가사를 잘 표현하게 만들어야 하며 자세는 차렷 자세를 취한다.

배에서 목으로 입안에 울리는 소리가 되게 불러야 목소리가 튀어 두 드러지질 않는다.

수행의 길이다. 악보를 보고 노래를 잘 만들어야 하는 등 나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49재를 시작할 때 난, “부처님 잘 부를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세요.”라고 빌어 본다.

재를 마치고 피아노 치시는 선생님이 아주 잘 불렀다며 칭찬을 하셨 다. 단원들도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합창의 묘미란, 합창단원이 함께 불러서 공동의 소리를 만든다는 데 있다. 나처럼 신입 단원이 합창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단원들의 소리에 이끌려가서 그와 비슷한 음을 낸다.

이것은 합창에서만 가능한 것 같다. 실전에 강한 것이 우리 만다라 합창단의 장점이다. 그만큼 많은 노력이 실력이 되고 ‘한 번’이란 기회에 나타나는 것 같다.

노래를 부를 땐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오롯이 합창곡에만 집중 해야 한다. 노래를 부르며 가사를 음미하고 마음을 움직이면 그 노래 처럼 모든 것이 환희해진다.




세상의 고락도 잊고 정말 부처님 세계에 드는 것 같다. 부처님 말씀을 노래로 공부하니 매우 기쁘다. 만다라 합창단 일원이 되어서 행복하고 즐겁다. 열심히 노력하여 아름다운 음을 낼 수 있는 단원이 되고 싶은 것이 나의 바램이다. 파이팅!!!!!

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법일 정사
수인사주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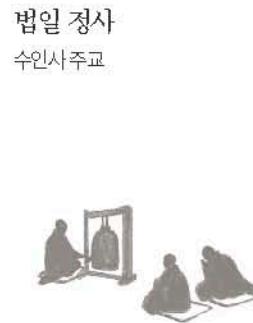


누군가가 한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의 스승은 누굽니까?”

스님이 말했다.

“어느 날 물가에 있으면서도 늘 갈중에 허덕이는
한 마리 개를 보았소. 그 개는 물을 먹으러 다가가다가는
화들짝 놀라 발을 빼곤 했지요.
물 위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딴 개라 생각했던 거지요.
그래서 물가에 있으면서도 갈중에 허덕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 개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물속으로 뛰어들었지요.
그러자 ‘딴 개’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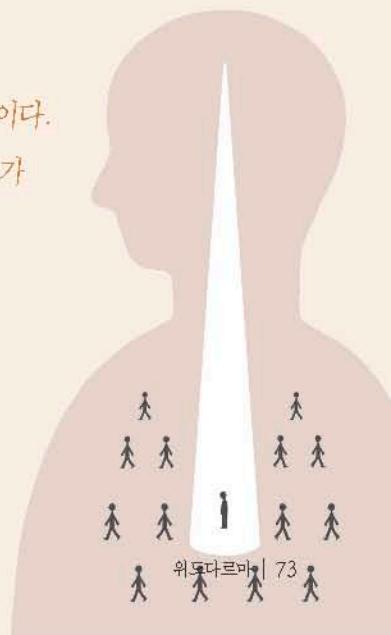
귀신의 장난

한 스님이 청정히 명상에 들어 있다가 웬 귀신 하나가 옆에 앉아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스님이 말했다.

“자넨 무엇 때문에 여기 앉아있니? 이젠 장난칠 일도 없을 텐데.”
귀신이 짜증스럽게 머리를 흔들었다.
“그래. 이미 술한 이론가들과 대가들이 나타났었지.
이젠 정말 내가 할 일이 없나 보군.”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대 자신이다.
반면에 그대가 가장 만만해하는 것도 그대 자신이다.
당신 안에 가장 두려운 그대와 가장 만만한 그대가
항상 숨바꼭질하고 있다. ▲





모든 종교는 행위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위는 곧 실천을 의미합니다. 머릿속에서만 생각한다면 종교는 되지 않습니다. 타자와의 연관이 있어야 종교는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타자란, 신이나 부처 같은 존재도 있으며,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 그리고 그 집합체인 국가나 사회 등이 있습니다. 밀교에서는 행위를 세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합니다. 신체적 활동, 언어적 활동, 그리고 정신적 활동입니다. 이것을 신밀, 구밀, 의밀이라고 부르며, 전체적으로 삼밀이라 합니다.

원래는 인간의 행위를 이러한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은 초기 불교에서 이루어졌고 '삼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업이라는 단어로도 알 수 있듯이 삼업에는 부정적(네거티브)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생류^{生類}가 윤회하는 원인은, 업의 축적에 의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업은 계율과도 결합되어, "십선업"이나 "십악업"이라고 하는 유형화의 형태로 행해졌습니다.

밀교에서는 이 삼업을, 반대로 긍정적(포지티브)인 것으로 전환합니다. 우리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같은 세 가지 활동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선업을 쌓는 것만으로는 이를 수 없습니다. 부처님 쪽에서의 움직임도 필요합니다. 부처의 활동도 똑같이 삼밀에 분류되어 그각각이 중생의 삼밀에 대응합니다. 다시 말해, 삼밀이란 회로를

통해서, 부처와 중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로부터 중생에 의 작용을 "가지^業"라고 부릅니다. 밀교에서 삼밀은 상징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신밀은 행자가 손으로 가리키는 무드라(인계), 구밀은 행자가 입에 담는 만트라(진언), 그리고 의밀은 행자가 들어가는 삼매의 경지인데 이것이 만다라로 나타납니다. 이 삼밀들을 통해 행자는 자신과 부처의 둘이 아닌 평등성, 즉 양자는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행자로부터의 실천의 벡터(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양)와 부처로부터의 가지의 벡터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밀가지는 "화엄경"과 같은 대승경전을 거쳐, "대일경"으로 정비됩니다만, 이 경전에는 "오자엄신관"이라고 하는 다른 계통의 관법도 설명됩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를 지수화공공의 5종류(5대)에 환원하고, 그 하나하나가 자신의 몸에 배치됩니다. 5대의 마지막 하늘부터 순서대로, 정수리, 미간, 가슴, 배, 허리의 5군데입니다. 각각의 원소는 고유의 색과 모양, 그리고 한 음절의 글자(종자)로 상징됩니다.

신체라는 소우주와 우주 전체가 구조적으로 일치하는 것에서 대우주 만큼의 대일여래와 행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체에 문자를 배치하고, 불^佛과의 합일성을 체득하는 행법은, 포치법^{布置法}으로 불리고, "대일경" 이후 밀교에서 특히 행해집니다. ■

현관

玄
關

玄검을 - 현

閤 빗장 - 관

집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현관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 ① 건물의 주된 출입구에 달아서 만들거나
방처럼 만든 문간
- ② 큰 도시의 역이나 외국과의 왕래가 빈번한
국경에 위치한 도시의 비유
- ③ 선학으로 들어서는 어귀
- ④ 선종 사찰의 작은 문이라 합니다.

현관의 본뜻은 '깊고 묘한 이치에 통하는 관문'의 의미입니다. 선종에서 쓰이던 용어로 깊고 오묘한 도^道에 들어가는 시작, 이치나 도리가 헤아릴 수 없이 미묘한 뜻에 출입하는 관문이란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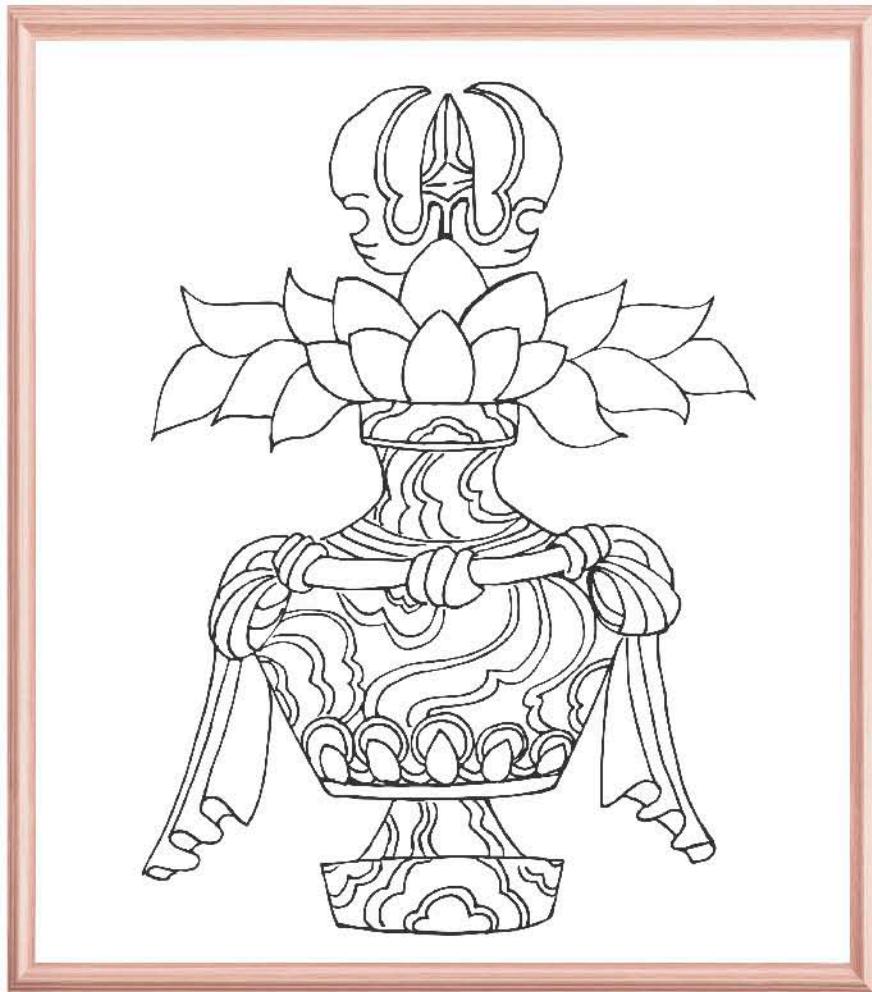
불교를 일컬어 '현문^{玄門}'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깊고 오묘해^玄, 절대의 피안인 이상경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비유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불법의 세계에 들어서는 문, 선의 세계에 들어서는 시작이란 의미의 불교용어가 선종 사찰에 들어가는 입구를 일컫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집안으로 들어서는 입구를 가리키는 용어가 된 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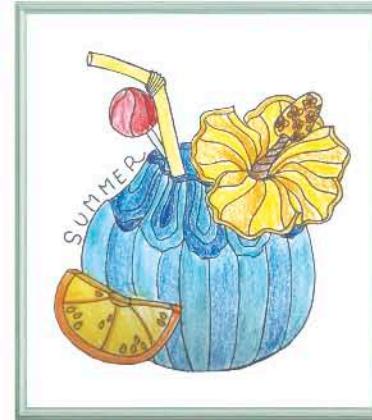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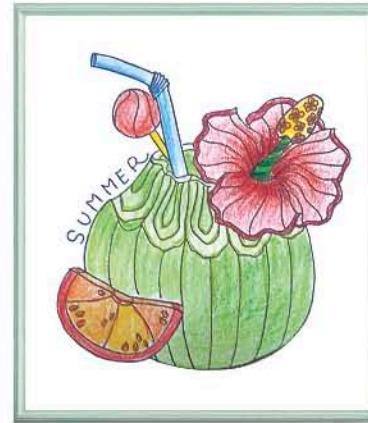
지난 호 독자 솜씨



색을 칠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 서울 황은하



▲ 서울 박정자



▲ 서울 김소은

색칠해서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됩니다.

■ 이메일 : news@chongji.or.kr
카카오톡 친구추가 . 불교총지종 종보실
각 사원 주교님께 전달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됩니다.

불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증 홈페이지에 언제글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증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강장자	강민두	곽노선	권도연
권순감	김덕원	김도연	김봉래
김성민	김송자	김양숙	김윤서
김은숙	김종철	김희원	류경록
류승조	배도련	서금영	손경옥
손재순	안한수	양진윤	오승현
오채원	오현준	유광자	유정식
이영재	이인성	이혜성	일심정
장정원	장승엽	장민정	정재영
주건우	지 정	총지화	최순기
최재실	한미영	한영희	허지웅

- 불교총지증 홈페이지 총지미디어에서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발 행 일 총기 48(2019)년 9월 1일

발 행 인 인선

편집책임 아선의

발 행 불교총지증

주 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 화 02-552-1080~3

팩 스 02-552-1082



아침, 저녁으로 에어컨 리모컨을
들고 다니면서 시원한 바람을 외쳤다.

을 여름에는 잠시도 더운 것을
참지 못했다. 그런데, 장마가
끝나고 나니 파란 하늘이 보이고
그 파란 하늘 가운데에 느낌이 다른
바람이 솔솔 불어온다.

이제 가을이 오려나 보다.
이제 그 무덥던 여름이 가려나 보다.
바람이 너무도 시원해 지기 시작한다.

아이들과 함께 가을 맞으려
가을 산책을 가야겠다.
아... 바람이 좋다.

9월호



착하지 못한 짓은 반드시 후회한다.
울며 호소한다고 과보가 없으랴.
어리석은 사람은 내 아들 내 재산만
급급하게 생각하고 걱정한다.
그 자신조차 제 것이 못되는데
어찌 아들이나 재산이 그의 것이 되랴.

- 법구경 -